벌거벗은 임금님

간신의 꾀임에
알몸 행진을 하게 된
어리석은 왕의 이야기

어느 왕국에
용맹한 왕이 있었다

그 왕은 리더십과
뛰어난 전투 감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었다

그러나 다소
바보였다

전부 사겠다!

귀한 마법의 옷을
고르시다니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폐하의 훌륭하고
늠름한 모습이
더욱 돋보입니다!

사기꾼들에게 속아
존재하지도 않는
옷을 사고 말았다

왕은 옷이 매우 마음에
들어 즐겨 입었다

폐, 폐하
그... 옷을 너무
자주 입으시는 게
아닌지...

마치 아무것도
입지 않은 듯이
가볍고 시원한 게
아주 마음에 든다

내 꼼

하오나...
다른 격식 있는 옷도
입으시는 것이
어떠한지요...

내가 격식이
없어 보인다는 말이냐!

!

그, 그게
아니라...

그, 그렇게
다리를
벌리시면...

왈짜

조, 조금
발기했어!?

사실 왕은 콤플렉스가
있었다

또 나를
바보 취급 하다니
...

정녕 내 주변엔
나를 존경하는 자는
없는 건가...

흠!

아아...
폐하의 자지가
화를 내고 있어...

지혜로웠던 선왕과 늘
비교되었기 때문이었다

전하...

매번 고맙군

치료시간이옵니다...

신하로서
폐하를 도울 수 있어
오히려 기쁠 따름입니다

아아
그래...

그래
그래도 루스
만큼은
내 편이야...

하앗...

하아...

움찔

치, 치료는 잘 되고
있는 건가

물론입니다!

자아 이제
늘 그랬듯이
독소를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움찔

찌걱

찌걱

찌걱

흐읏...

크흣!

왕은 간신에게 속아
이상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조, 조금만
천천히...

그리하면
치료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사내답게
참으십시오!

흐긋!!!

응...!

응옷...!

오오오!
나옵니다!
폐하의 몸 안에
쌓인 진한
독소들이...!

아...

오싱♥

그럼 이제
약을 드실 차례입니다

꾸욱♥

오싱♥

하아...

오늘은 특히 많은
독소를 배출하신 만큼
제가 만든 약을 잔뜩
섭취하셔야 합니다

...?

그, 그렇군...

후후
잘하셨습니다
폐하...

쥽
흑ㅡ
쥬웃
응ㅡ
쥬웃ㅡ
할짝
하아ㅡ
하아ㅡ
쥿ㅡ
움찔♥
움찔♥
응...
오늘은 자지... 아니 약의 냄새가 너무 진해서 괴롭군...
하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니까...

쯥쯥

멍청한 놈
일주일 안 씻은
자지를 이렇게
열심히 빨아대다니...
푸후훗

응

쯥쯥

아아 폐하께서는
역시 몸으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잘하시는군요!

허리를 어쩔 줄
모르고 흔드는 게
완전히 발정 난
개나 마찬가지군

쯥쯥

저도 폐하를 위해
일주일을 참아온
진한 약물을
내보내겠습니다...!
으랴아아앗!

쯥쯥

붓!!

붓!!

후우...
폐하 어서
꿀꺽 꿀꺽 삼키세요

꿀꺽

응굿...!

후웃...!!

꿀꺽

응....

자아 아까우니까
묻어 있는 약물도
깨끗이 핥아
삼키세요

핥-

핥아

후후...
폐하께서는
왕 노릇보다는
자지나 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뭐라 하였느냐...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후후후...

간신들은
달콤한 칭찬과 미약으로
왕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후오옷!
왕의 뱃속에
싼다앗!

폐하!
다 흐르지 않습니까!
정말 자지도 제대로
못 빠는 겁니까!

왕은 몹쓸 짓을
당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했다

결국
왕은 간신에게 속아
전라의 몸으로
백성들 앞에서
행진하기에 이르렀다

…
……

…
……

이렇게나
쥐죽은 듯
조용하다니…

모두 짐의
멋진 위용에
감탄했나 보군

엄마 폐하의
꼬추가 보여..

쉿…

…

덜렁♥

덜렁♥

루스는 이 자세가
강인한 왕의
위용을 보여줄 거라고
했었지

활

짝♥

백성들이여
짐의 늠름한
모습을 잘 보거라
...!

이것이 짐의...

엄마! 폐하는 왜
똥구멍을 보여주는
거야?

...아?
와하하하
깜짝
쉬... 쉿!!! 조용히 해!
...
.....
푸훗...
!

와하하핫!
도저히
못참겠다!

벌거벗고
행진이라니...
푸하하핫!

아...

마법의 옷이...
.....
아?

쯧쯧...
선왕이 이 모습을
봤다면...

하하핫!
바보왕이야!

저것봐!
폐하의
고추가 커졌어!

!?

왕의 물건이라
튼실~하구만

무, 무엄하다...

...
아...

오마이갓

변태왕이잖아

움찔

움찔

가,감히
짐의 몸을...

감히...

왕은 잔뜩 놀림을
당하고 수치심에
휩싸여 성으로
돌아갔다

왕은 급히 간신들을
찾았지만 대량의 보물을
들고 이미 먼 외국으로
달아난 뒤였다

왕은 한동안
괴로워했지만
이 사건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진정으로 자신을
염려하는 충신이
누구였는지 알게 된
것이다

왕은 감언이설에만
귀를 열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했다

그리고...

하아...

하앗...♥

그리고 충신에게
몸과 마음을
모두 열어 보였다

폐하...
정말로 매일
이러다간
들켜버립니다...
팡
팡 팡
하앗♥
아아...
성 밖의 야외섹스
최고♥
큥♥
붓♥ 붓♥
하앗♥
괘,괜찮다...♥
조심해서 하면
안 들키니까...♥
앗♥
왕은 새로운
취미가 생기고
말았다
END